

규제 개혁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기대

하 반기에는 위조상품 제조, 유통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상품 관련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를 그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하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부경법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위반자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자의적인 과태료 금액 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눔교육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발명투어!! 대덕소년원 방문

특 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5월21일 발명교육의 소외계층인 대덕소년원의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그간 발명투어과정은 정규학교 학생중심의 강연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발명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으로 그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나눔교육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나눔캠프를 개최하여 지역아동복지센터 공부방 청소년 114명 대상으로 발명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허청은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발명교육센터 전문강사(서울보성고 교사 정호근)의 발명에 관한 동영상을 시작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성함양 중심의 발명교육을 소개하였다.

소년원생에 대한 발명교육은 지난 4월 29일 춘천소년원을 시작으로 이번 대덕소년원 방문까지 학생들의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허청은 이를 계기로 소년원에 대한 발명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부품소재 中企, 강력한 특허로 무장하여 미래시장 선점

특허청, 녹색기술, 부품소재 中企에 지재권(IP)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2차 지원

특허청은 첨단부품·소재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IP)-연구개발(R&D) 전략지원팀을 파견하여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009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의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면, 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특허공세를 받아,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IP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총 60억 원 규모로, 첨단부품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중 최대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당 과제수행비용의 80%(최대 9,4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과제별 2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 역시 전략수립 후 해당 기업이 전략에 기초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 경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 그린에너지 기술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특허청 & 한국가스공사 MOU 체결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6일 MOU를 체결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연료전지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미래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합의하였다.

특허청장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기술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한 후 이를 구현할 핵심, 원천 특허에 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개발 인프라와 특허청의 전략적 지재권 분석 기법은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터미널, 저장탱크 등에 관해서는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6년간 1,186억 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기술과 가스전 등 미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금번 MOU를 통해 미래 그린에너지 특허기술 분석 및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지재권화를 위하여 연구과제의 수립·기획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치열한 特許 戰爭에 대응할 核心 戰士들을 길러낸다

특허청, 내년 1학기부터 지식재산 전문학위(MIP)과정 본격 도입

빠르면 내년 1학기 중 대학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석사, MIP,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내(社內)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소송이 급증하고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하면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공학·특허 법률 등의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적 측면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강국들은 치열한 지재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이 해외 소송 사례 실무,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 등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동경이과대학(東京理科大学) 등에서는 지식재산전략(MIP) 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공학·법률·경영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 중에 있다.

특허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2개 이내로 교육기관을 선정, 향후 5년간 총 25억 원 이내로 학위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2년간 사업 추진 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최적의 교육모형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출연(연)의 우수발명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각각 45개씩 90개 기술 대상...최대 1,200만 원까지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 등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90개의 우수기술에 대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국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이 출원비용 부족으로 권리화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200만 원,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개별국가 출원 300만 원, 유럽 출원 600만 원으로 1개 기술 당 최대 3개국까지, 최대 1,200만 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특허출원 평가모델에 의하여 출원 전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사전 검증된 기술로 해외 기술의 질적 향상과 평가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발명인의 성공스토리 책자 발간

총 15편의 발명을 향한 도전과 애환 그리고 성공의 감동 스토리

특허청은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자 발명인들의 발명이야기를 책자 **특**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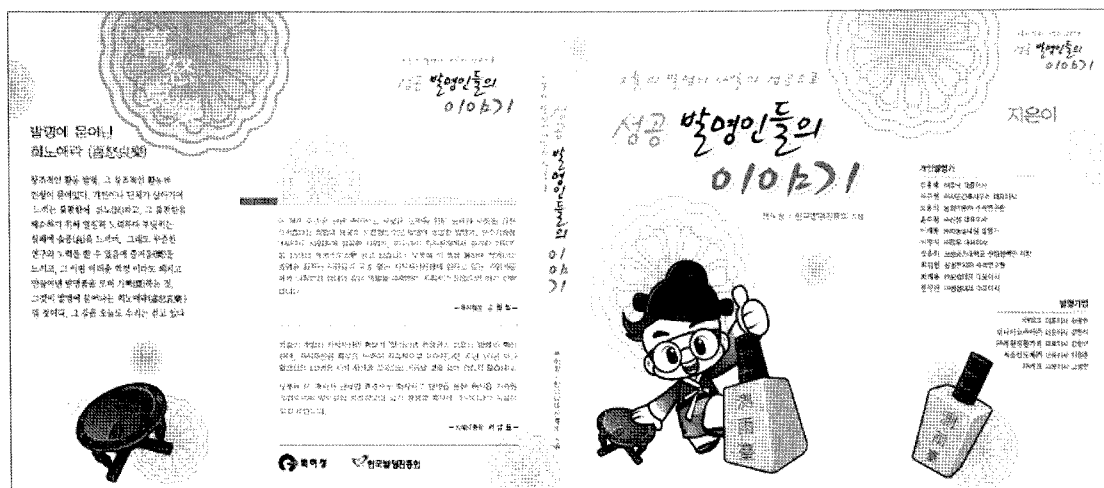
책자는 올해 제44회 「발명의 날」기념식에서 상을 받은 발명인과 기업, 역대 발명대왕 등 수상 경험이 있는 발명인 및 기업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발명에 성공한 발명가,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가, 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가’ 등 발명인 10인과 기업 5개 총 15편의 발명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공 발명인들의 이야기’라는 책 제목처럼 책자는 발명에 따른 난관과 극복사례, 발명과 관련한 에피소드, 기술 개발 성과, 개발 전·후 비교분석, 사업화 진행 시 어려웠던 일과 극복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수필형식으로 편찬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특허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발명을 꿈꾸는 사람들과 국경 없는 지식재산전쟁에 임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발명유관기관, 발명교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표지 이미지〉



제공 특허청